

뉴스의 인물

신임 과학기술부

蔡永福 장관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과학기술부 장관실  
일자 : 3월 16일



## “과학기술 인력양성 · 사기진작 최선”

신임 蔡永福 과학기술부장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기술자 사기 제고를 위해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비지원, 사회적 명예제고와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蔡장관께서는 그 동안 개각이 있을 때마다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유치 과학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기합성연구실 실장으로 오신지 23년만에 과학기술 행정의 수장에 오르셨습니다. 남다른 감회와 소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된 것

은 ‘국민의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 정책을 잘 마무리하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중책을 맡고 보니 우선 우리 과학기술계 전체가 힘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자원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특정

분야의 과학기술 투자와 인력은 미국의 1개 기업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을 모자이크에 비유한다면 과학기술부는 한국의 과학기술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부처인 만큼 산·학·연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화된 과학기술 정책을 펴나도록 할 생각입니다.

■ 과학기술계는 蔡장관에 대해 남다른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蔡장관이 과학기술 정책의 결정과정을 밖에서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임 장관과 달리 과학기술 행정이 정치논리 아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장관 재임 중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룩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 연구원은 연구 몰두토록

우선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사기진작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연구라고 하면 대학·산업·연구소 등 세권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진작이라는 면에서 보면 대학과 산업계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입니다.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사기진작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 노동집약사회에서 기술집약사회를 거쳐 지식집약사회로 옮겨가고 있는데 있습니다. 노동집약사회에서는 기능인이, 기술집약사회에서는 기술자가 사회발전의 축이 되었지만 지식집약사회에서는 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이 경제·사회발전의 축이 됩니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의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 동안 과학기술 정책의 국가적 차원의 종합조정과 연구소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계획합니다.

과거 박정희대통령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압축성장을 위해 공공부분이 선도해 가는 정책을 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모방 위주의 기술에 바탕을 둔 경제에서 창의적 혁신기술에 바탕을 둔 경제로 탈바꿈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윤이 연구개발로 이어져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일용품에 매달리다 보니 이윤창출을 물량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를 만들어 이윤이 적으면 둘을 만들고 이것도 안되면 셋, 넷으로 늘려가는 방식이지요. 이와 같은 양산체제가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하려면 문지방넘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가는 선순환을 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박사급 고급 인력을 쓸 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의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고급 인력을 쓸 수 있게 되면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이윤창출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이 일단 이루어지면 자력에 의해 계속 바퀴가 커지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기업이 고급 인력을 더 필요하게 되고 취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는 저절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6.1% 증가한 4조9천5백56억원으로 정부 지원금액 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4%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정부예산 대비 4.7%로 역대정권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반겨야 할 과학기술자들이 의외로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 보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요.

### 국가연구원 제도 등 도입

과학기술자 사기저하의 원인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자 사기제고를 위해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비 지원, 연구역량 향상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사회적 명예 제고와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수 연구원에 대한 영년직(永年職)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비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심층연구를 활성화

해 갈 것입니다.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신생융합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연구업적과 능력이 탁월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원 제도(National Research Fellowship)'의 도입과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공로연금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힘을 쏟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과학기술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의 배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현재 마련 중인 '국가기술지도(NTRM : National Technology Road Map)'는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NTRM은 미래시장 예측을 토대로 미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해야 할 기술을 예측하고 최선의 기술대안을 선정하는 기획입니다. NTRM은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완성, 12월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물론 대학과 산업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교통정리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과학기술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올해 대입 수능자 가운데 자연계 지망자가 26.9%(19만9천명)로 1998년의 42.4%(37만5천명)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이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신임 蔡장관(오른쪽)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과학교육, 입시제도, 과학기술자에 대한 낮은 인식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고급 과학기술 인력 수요창출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중·고교 과학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과학영재교육을 정상화하여 이공계 진학 촉진과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을 개방하여 실험실습과 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과학분야에 뛰어난 학생을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며 우수 과학교사에게는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시상토록 하고 과학영재교육의 정상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공계 대학 진학촉진과 우수 학부생에게 과학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입니다.

■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증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현상이라 봅니다. 잘 사는 나라의 청소년들의 눈에 이공계 직종이 3D업종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책적으로 이공계 인력을 대부분 못 시는 나라들부터 얻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과학기술두뇌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현행

**‘외국인 과학기술자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화혁명, 생물과학혁명 등 최근의 급속한 과학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외국 첨단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사이언스 카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이언스 카드제도는 연구기관과 대학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자에게 3년 정도의 장기·복수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국내에 유치되는 과학기술자 등의 출입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20명의 외국인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 오는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1998년 집권하자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합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새로 등장할 정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권당이 어디가 되면 과학기술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蔡장관 재임 중에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과학기술 행정조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제시와 그의 실행

을 위한 핵심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21세기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는 첨병으로서 미래 국가운영의 핵심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과학기술강국 진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국가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발전의 핵심이 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과학기술이 국정 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런 과학기술부를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원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 대중화사업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과학대중화 운동 확대

과학기술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해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계 우수 스타를 발

굴·소개하여 청소년들이 이들 과학기술계의 스타를 닮아 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과학축전, 지역 과학축전, 청소년과학경진대회, 별빛축제 등 과학체험행사를 보다 알차고 성대하게 개최할 것입니다. 국제 청소년 과학캠프를 개최하여 학교 밖 과학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면서 과학독서 장려를 위한 ‘사이언스 북 스타트’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테마형 「국립과학관」건립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마인드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SBS의 ‘호기심천국’ 등 TV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해 11억원, 우수 과학만화 보급과 과학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위해 7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과학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NGO, 언론사, 대학동아리, 과학교사단체 등에 과학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올해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과학기술자들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들이 시대적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할 때라 봅니다. 우리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발전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